

땅에 쌓인 시간과 흔적... 일상의 표면 반추

전남도립미술관 벨기에 화가 쿤 반 덴 브룩 조망 7월 19일까지... 동시대 미술의 맥락 속 '재조명'

도로와 보도의 균열, 차선, 그림자처럼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는 '땅의 작은 흔적들'을 통해, 익숙한 장소를 새롭게 조망하는데 집중해온 벨기에 화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지난 7월 개막, 7월 19일까지 벨기에 화가 쿤 반 덴 브룩(Koen van den Broek)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는 개인전을 '지구의 피부'라는 타이틀로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출품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작까지의 회화와 드로잉 61점이며, 사진과 인터뷰 영상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소개된다.

쿤 반 덴 브룩의 시선은 남도의 해안과 갯벌, 콘크리트 제방과 아스팔트 도로가 함께 있는 풍경과도 닮아 있으며, 관람객이 일상의 표면을 다시 바라보도록 이끈다.

작가는 어린 시절, 학교에 가는 길에 보도블록의 타일 수를 세거나 틈 사이에 자란 풀과 이끼를 바라보며 긴장을 풀곤 했다. 이런 경험은 땅의 표면을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생각과 감각이 머무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전시 타이틀인 '지구의 피부'는 이런 개인적인 기억에서 출발해, 우리가 서 있는 세계를 다시 느끼게 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건축과 공학을 전공한 그는 회화로 전향한 이후 25년 넘게 도로, 보도, 교차로, 주차장 등 도시의 주변 공간을 꾸준히 탐구해왔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뉴욕, 라스베이거스, 시카고의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본, 쿠바, 한국 등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착된 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멈춰 있는 듯한 분위기로 담겨 있다.

작가는 이런 사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장면의 구도와 시점을 회화로 옮긴다. 화면 아래에서 잘려나간 차선,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보도, 화면 밖으로 이어지는 그림자와 경계는 실제 장소를 보여주면서도 점차 단순한 선과 면, 색의 조합으로 바뀌며 추상적인 화면으로 이어진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균열, 연석, 그림자, 새와 같은 요소들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장면을 다시 보게 만들며,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바꿔 놓는다.

오늘날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 7월 개막, 7월 19일까지 벨기에 화가 쿤 반 덴 브룩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는 개인전을 '지구의 피부'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데, 작가가 주목해온 '땅의 표면'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표면은 웅장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닳아버린 아스팔트, 덧칠된 차선, 빗물 자국, 갈라진 틈 사이로 드러난 흙과 같은 모습이다. 작가는 실제 도로 공사에 쓰이는 타르와 교통 표지용 페인트를 캔버스에 사용해, 인공적인 재료와 자연이 만나는 지점을 화면에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쌓인 시간과 흔적을 느끼게 한다.

특히 작가가 전남도립미술관 설치 기간 동안 전시장에 머무르며 벽면에 직접 그린 드로잉을 포함, 선과 리듬이 전시 공간 전체로 확장된다. 완성된 작품과 현장에서 그려진 드로잉이 함께 어우러지며, 관람객은 전시 공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자연

스럽게 흐름을 느끼게 된다. 이 전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땅의 표면을 '지구의 피부'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전시는 총 다섯 개의 전시실로 구성되며, 연대기적 배열이 아닌 이미지와 물질의 흐름에 따라 작가의 시선이 확장되는 과정을 따라간다. 1전시실 '도시의 장면들'에서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작업을 중심으로, 연석과 차선, 그림자 등의 도로 요소가 도시 구조를 드러내는 풍경의 단면으로 제시되며, 2전시실 '도로의 이미지들'에서는 'Dead End', 'The Edge' 연작을 통해 도로와 건축의 일부가 강렬한 색면과 단순한 구도 속에서 추상

적 구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3전시실 '균열의 풍경'에서는 갈라진 아스팔트, 타르 자국, 교통 표지 등이 확대되며 도시 표면에 축적된 시간성과 물질성을 드러낸다. 4전시실 '이미지와 개입'에서는 존 발데사리(John Baldessari)와의 협업작 'This is an Example of That' (2008)을 비롯해 영화 스틸 이미지 위에 색면과 선을 개입시키는 작업, 그리고 타르와 도로를 활용한 회화를 통해 이미지 차용과 회화의 물질성을 탐구한다.

이외에 5전시실 '지구의 피부'에서는 사막, 교외, 도시 외곽 등 다양한 경계 공간에서 포착된 도로 풍경과 함께 사진, 작업 노트, 인터뷰 영상 등 아카이브를 제시하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수집된 이미지들이 하나의 표면 위에서 중첩되는 장면을 구성한다.

이지호 관장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쿤 반 덴 브룩의 개인전을 남도에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이번 전시는 일상적인 도로와 표면을 통해 우리가 밟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지역의 풍경을 동시대 미술의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음악·역사 그리고 증언, 스크린에 담다

거장 회고전부터 음악영화, 정치·사회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영화가 광주극장 스크린을 채운다.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조망하는 작품을 비롯해 베니스국제영화제 수상작, 한국 사회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고전 명작 재개봉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조망하는 다큐멘터리 '류이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다. 2023년 세상을 떠난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생애 마지막 3년6개월의 시간을 기록했다. 이어 1984년 도쿄에서의 창작 과정을 기록한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 (25일 개봉)가 상영된다. 젊은 시절의 창작 에너지와 말년의 사유를 나란히 마주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음악가 사카모토의 제작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음악 팬들을 위한 작품도 이어진다. 프레디 머큐리 사망 35주기를 맞아 상영되는 '퀸 락 몬트리올' (17일 개봉)은 1981년 캐나다 몬트리올 공연을 4K로 복원한 라이브 시네마다. '보헤미안 랍소디', '위 윌 락 유' 등 대표곡을 대형 스크린으로 체험할 수 있어 공연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거장 감독의 신작 역시 주목된다. 일디코 예네디 감독과 배우 양조위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침묵의 친구' (17일 개봉)는 한 세기를 관통하는 시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은행나무를 매개로 서로 다른 시대 인물들을 연결하며 울림을 전한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도 잇따라 관객을 찾는다.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카우타르 벤 하니야 감독의 '힌트의 목소리' (17일 개봉)는 가자지구에서 구조를 요청한 소녀의 실제 음성 기록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달한다. 초

연 당시 23분간 기립박수를 받은 작품으로, 영화적 형식을 넘어선 '증언'의 성격을 지닌다.

국내 작품 가운데서는 정치영 감독의 신작 '내 이름은' (20일 개봉)이 눈에 띈다. 제주 4·3의 기억을 현재와 교차시키며 개인의 사사와 역사적 비극을 결합한 미스터리 드라마. 시민 1만여 명의 참여로 제작된 점에서 또 의미를 더한다.

정치와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빨간 나라를 보았니' (20일 개봉)는 보수 텃밭에서 선거에 도전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만 12.3' (22일 개봉)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긴박한 현장을 기록한 시네마틱 다큐멘터리로, 두 작품 모두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관계와 감정을 섬세하게 그린 김효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 '새벽의 Tango' (22일 개봉)는 관계에 서툰 인물들이 서로를 통해 다시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재개봉작 또한 주목할 만하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이 원작인 티다 스윈튼 주연의 '올란도'는 성별과 시대를 넘나드는 존재를 통해 인간 정체성의 본질을 묻는 고전으로, 다시 봐도 여전히 유혹한 질문을 던진다. 제78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이자 이동진 평론가가 2026년 첫 별점 다섯 개를 부여한 세르히 로즈니차 감독의 '두 검사'는 전체주의 체제 속 진실을 추적하는 서사를 통해 묵직한 긴장감을 전한다.

한편, 광주극장은 17일부터 '퀸 락 몬트리올', 25일부터 '류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를 감상한 관객들에게 선착순으로 스페셜 포스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람료와 상영 시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농악의 신명으로 공동체를 깨우다

지산농악보존회, 18일 광주 전통문화관서 무대

봄별이 무르익는 4월의 토요일 오후, 광주 전통문화관에 농악 장단이 울려 퍼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8일 오후 3시, 토요일상공연 2회차 무대로 지산농악보존회의 '맥(脈)을 잇다-살과 공동체를 여는 연희'를 선보인다.

'맥(脈)'이란 흐름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를, 과거와 오늘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기운. 이번 공연은 그 끊어진 맥을 다시 잇는 과정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공연은 집과 터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주굿으로 막을 연다. 신을 모시는 엄숙한 의례에서 출발해, 하늘과 인간을 잇는 중천매이, 묵은 액운을 털어내는 액매이를 거치며 무대는 점점 살아 숨 쉬기 시작한다. 부포놀음, 설장구놀음, 소고춤, 버나놀음으로 흥이 무르익으면, 마침내 연희자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동판으로 공연은 절정을 맞는다. 무대와 객

석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

무대를 이끄는 사) 지산농악보존회는 전남 담양과 장성 일대에 뿌리를 둔 농악의 전통을 보존해온 단체다. 2002년 창립 이래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전통문화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토·토·진!'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운영하며 절기 체험, 농악 타악 체험,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다음 주인 25일에는 동초제 춘향가 보유자 방성훈의 판소리 무대도 예정되어 있다.

화려한 조망도, 첨단 음향도 아니다. 오래된 장단 하나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오후, 전통문화관은 그렇게, 우리가 잊고 살던 공동체의 온기를 다시 불러낸다.

황해운 기자 nab@gjdream.com

